

아·태 마스터스 성공 발 벗고 나섰다

전북체육회, 조직위와 협업·협조체제 구축 만반의 준비
전국 투어 나서는 등 대회 참가자 모집활동 진행키로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정강선 회장이 전방위 홍보 활동에 전념 나서기로 하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전망이다.
27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5월 27일 도 체육회에 펼쳐지는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는다.
도 체육회는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와 협업·협조체제를 구축, 만반의 준비를 기하기로 했다.
이에 도 체육회는 대회 참가자 모집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도내를 비롯해 타 시·도 등 국내 참가자들을 모집하기위해 전국 투어에 나선다.
현재 각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에 인내가 됐지만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대한체육회와 전국 시·도체육회를 직접 돌며 아·태마스터스 대회 범 조성을 위해 총력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효과가 높기위해 정강선 회장이 직접 시·도 체육회장들을 만나 참가자 모집 및 오는 5월 전국 생활체육인들이 전복으로 모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민선 1기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 부회장은 제주·강원도 체육회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대한체

육회 및 전국 시·도체육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대회인 만큼 국외 참가자 모집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도 체육회는 인프라를 활용, 세계적인 인체육총연합회(회장 윤만영)에게 협조를 구한다.
정 회장과 세계한인체육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은 상호간의 두터운 신뢰 속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앞서 도 체육회는 민선체육회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세계한인체육총연합회와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재사우만대한체육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는 물론이고 전북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손흥민, 가디언 선정
세계 축구선수 랭킹 26위

손흥민(토트넘)이 가디언이 선정된 세계 축구 선수 순위에서 26위에 올랐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 27일(한국 시간) 2022년 세계 축구 선수 순위 11위에서 100위까지 발표했다.
손흥민은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랭킹에서 39위에 올랐던 손흥민은 13계단 상승했다.
가디언은 "손흥민이 지난해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올려 13계단 올랐다. 손흥민은 2022년 새해부터 2021~2022 시즌이 끝날 때까지 15골 6도움을 기록해 토트넘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위에 올려놓고, 득점왕에 등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입단한 심준석. (사진=피츠버그 파이리츠 SNS 캡처)

강속구 투수, MLB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꿈을 좇아 미국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다"

강속구 투수 심준석(19)이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공식 입단해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꿈꾸고 있다.
심준석은 지난 27일(한국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입단식을 치렀다.
고교 최대어로 꼽히던 심준석은 2023 KBO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미국행을 선언했다. 슈퍼 에이전트로 통하는 스포츠 보라스를 선임해 피츠버그와 계약을 이룩했다.
심준석은 덕수고 시절 150km/h 후반의 직구를 던져 메이저리그 구단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결국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게 됐다.
심준석은 입단식에서 "PNC파크에서 빨리 공을 던지고 싶다. 아직 길 같이

멀지만 오늘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며 "미국에서 뛰는 게 꿈이었다. 꿈을 좇아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피츠버그는 한국인과 인연이 깊은 팀이다.
박찬호가 2010년 미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몸담은 팀이 피츠버그다. 내야수 강정호가 피츠버그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박효준도 2021~2022년 이 팀에서 뛰었다.
현재 내야수 최지민과 배지환이 피츠버그 소속이다. 배지환은 2018년부터 피츠버그에서 뛰었고 최지민은 지난해 11월 트레이드를 통해 피츠버그에 새 등지를 틀었다.

/뉴시스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 중국 생활체육인 참가자 모집 총력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위원장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사증 발급 제한 조치(31일까지 연장가능)로 인해 중국 내 생활체육 스포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직위는 중국 발 단기 사증 발급

제한 관련 국제경기대회(아태대회) 참가자를 예외적 입국 사유에 포함해 줄 것을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조직위는 중국 단기 사증 발급 제한이 풀리면 즉시 모집이 가능하도록 중국의 전복도 우호협력

도시인 산동성과 상하이뿐만 아니라 아태마스터스대회에 관심을 갖는 항저우시와 화이안시를 직접 방문해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위는 해외 참가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출입국 비자발급 간소화, 출국입국 전용심사대, 수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비자가 필요한 나라 81개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 명의 초청장을 발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K리그, 세계프로축구리그 18위

J리그 30위·사우디 리그 40위 등
전북현대, 프로팀 순위서 42위 차지

K리그가 12년 연속으로 국제축구연맹(IFHS)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리그가 됐다.
IFHS가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전 세계 프로축구리그 순위에 따르면 K리그는 18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22위에서 4계단 오른 수치이자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프로축구리그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이로써 K리그는 2011년부터 12년 연속으로 IFHS 선정 아시아 프로축구리그 순위 1위 자리를 지켰다.
K리그의 2022년 환산점수는 525.25점(18위)이



다. 일본 J리그가 402점(30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프로페셔널리그가 352.75점(40위), 우즈베키스탄 슈퍼리가가 297점(57위)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2022년도 전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리그 순위는 브라질 세리에A(1181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086점), 스페인 라리가(967.5점) 순서였다.
IFHS가 발표한 세계 프로축구클럽 랭킹에서는 전북현대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42위를 차지했다. 울산현대가 99위, 대구FC가 133위로 뒤를 이었다.

/뉴시스

← 전북현대 조규성 의 단체.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31일(화)~2월 1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